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

전략 소식지

4권 6호
2018년 6월

5월 주요활동

2018 카투사/미군 친선주간

'2018 한미 친선주간'을 맞이하여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부대들이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한미동맹의 정신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카투사는 (미 육군배속 한국군) 미군과 함께 주한미군 임무의 필수적인 역할을 맡으며 복무해왔다. 한미 양국군은 이번 일주일 간의 행사와 문화 교류를 통해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 아래 사진과 같이, 미군 병사들은 두루마기, 마고자, 사모 등을 착용해 보는 전통 한복 체험 시간을 가졌다. 카투사 제도는

미 제2보병사단

1950년 국군과 미군 사이의 비공식적 협정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67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어져 양국 장병의 유대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주한 미육군 레드클라우드 기지 사령관 브랜든 뉴튼 (대령)은 "한미 동맹은 혈맹으로 맺어졌으며, 동일한 가치관와 전사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특별한 동반자 관계"라고 말하며 친선 주간을 마무리했다.

주한미군, 2018 미 현충일 기념 캠프 험프리스 연병장 명명식 거행

지난 5월 24일, 주한미군 장병들과 군무원 및 그 가족과 친구들이 미 현충일 기념행사를 위해 캠프 험프리스의 신축 주한미군사령부 건물 앞에 모였다. 이날 기념식을 주관한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은 "우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억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한국에서의 복무와 경계태세를 통해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또한 캠프 험프리스의 연병장이 앞으로 명예훈장 수훈자인 찰스 H. 베이커 일병의 이름을 따 '베이커 필드'라 불릴 것임을 공표했다. 베이커 일병의 소대는 1953년 6월 4일, 폭찹힐 전투에서 적의 완강한 저항에 봉착했다. 베이커 일병과 다른 한 명의 병사는 다른 소대원들이 더 높은 고지로 이동할 동안 소총과 수류탄으로 엄호사격에 나섰다. 그의 소대는 전투가 고조되고 탄약이 고갈되자 철수 명령을 받았고, 이때 베이커 일병은 잔류하여 후퇴 엄호를 자원했다. 그리고 적과 백병전을 치르는 모습이 베이커 일병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약 37,000여명의 미국 청년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였던 한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은 그들의 희생을 지금껏 잊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5월 주요 방문객

사령부와 우리의 임무 및 부대원들에 대해 알리고 견해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귀빈들을 모실 수 있는 것은 큰 영광이다. 다음은 지난달 사령부를 찾아 주신 고위급 방문객이다.

- 테렌스 오쇼너시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
-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
- 매트 베빈, 미 켄터키 주지사
- 키이쓰 하먼, 미국 해외참전용사회 회장
- 마샤 맥셀리, 미 하원의원 (공화당-애리조나)/하원 군사 위원회/국토안보 위원회
- 톰 오헬러런, 미하원의원(민주당 - 애리조나)/하원 군사 위원회
- 데이빗 슈바이케르트, 미 하원의원 (공화당 - 애리조나)/하원 조세 무역 위원회
- 지미 패네타, 미 하원의원 (민주당 - 캘리포니아)/하원 군사 위원회

피드백

질의, 의견 또는 편집의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십시오.

미 제2보병사단 폭발물 처리반, 태평양 대회에서 승리

(오른쪽 사진) 한국 캠프 호비에서의 훈련중, 네바다주 민든에서 501 화생방 중대로 배치 받은 매튜 루벤 상병이 뉴욕 로체스터에서 718 폭발물처리반으로 배치된 그의 상사 애드워드 몬진스키 하사의 방호복 착용을 도와주고 있다.

세라 윌리엄스 (SARAH WILLIAMS)

담당자: 알만 쿠치넬로 (Armand Cucciniello) armand.v.cucciniello.ctr@mail.mil